

광주시 '도시공원 아파트 건립' 재검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접수 1단계 4곳은 그대로 적용
2단계 중앙·중외·일곡공원은 개발 방식 다각 모색
시민단체·전문가 “민·관·땅 소유주 해법 찾아야”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2단계부터 사실상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도' 도입을 골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을 하반기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도심 녹지인 도시공원에 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 구역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 공급세대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도시공원법에 마련해 민원도 해결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풀려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임차료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섣불리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그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는 수암·마곡·송암·봉산근린공원 등 4곳에만 한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오는 10월로 제안 접수가 예정된 중앙·중외·일곡공원, 3단계 영산강대상·신용·송정공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찰제도,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공개발방식, 공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공원 지정, 공모제 시행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 이후 다양한 사례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모두 25곳으로 면적만 11㎢에 달한다. 시는 이들 공

원을 모두 매입하는데 2조7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우선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우선 이들 도시공원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몰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별로 개발·보존 여부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건설업체에게 개발권을 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토지신탁, 임대, 공채 발행 등의 방법을 고민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개발 행위 자체를 공공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핵 등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위비·FTA 재협상 속제로

문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
정상회담 6개항 공동성명



용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일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Code-one)'을 타고 1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워싱턴D.C.캐피털 힐튼호텔 2층에서 재미교포 대표 인사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포괄적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양국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국·동맹과 폐기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 상용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끌어냈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소년축제 대상팀의 파워풀 댄스 '제6회 청소년축제'가 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에서 열렸다. 공연예술 부문에 참가한 송원여상댄스팀 '치얼스'가 화려하고 파워풀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모두 17개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치얼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관련 기사 7·18·2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4일까지 50~100mm 장맛비

6일까지 장마전선 영향

광주·전남지역에 2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는 4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마전선이 한반도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6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오후 3시까지 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광산구 33mm, 서구 18mm, 북구 13.1mm, 광산구 1.5mm를 기록했다. 전남에선 곡성이 17mm, 나주가 15mm, 담양이 11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그 외 지역은 10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0~100mm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의 경우,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9일 시작돼 평년보다 7일 늦었다고 설명했다. 평년의 경우 6월 23일 시작해 한 달 후인 7월 23~24일 끝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중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지속가능발전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 등 극복하여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 ▶ 광주온도 1°C 낮추기
- ▶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 ▶ 1사1산1하천 가꾸기
- ▶ 물 순환 선도도시 등 참여

광주광역시